



(04523)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 금세기빌딩 5층 T 02.724.4100 F 02.724.4109

문서번호: 더벨

수 신 : 취업센터

참 조 : 취업센터 담당자

제 목 : 더벨 수습기자 채용의 건

1. 귀교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본시장 전문 미디어인 더벨(thebell)에서 창의적이고 패기 넘치는 수습기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1. 회사소개

더벨은 머니투데이 미디어가 2007년 설립한 국내 최초의 자본시장 전문 미디어입니다. 전문교육을 받은 기자 90여명이 국내외 자본시장 및 경제주체들의 움직임과 변화, 주요 경제·금융정책 이슈,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등의 소식에 대해 빠르고, 심층적인 뉴스를 제공합니다.

국내 대부분의 금융회사와 대기업들은 이미 새로운 개념의 미디어인 더벨을 통해 신속하고 깊이있는 자본시장 뉴스를 만나고 있습니다. 매체 홍수의 시대, 자본시장 전문 매체 더벨이 젊은 기자 지망생의 패기 넘치는 도전을 기다립니다.

2. 모집요강 : 별첨 참조

주식회사 더벨
대표이사 성화용



더벨 수습기자 모집 요강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모집부문	모집인원	지원자격
취재부문 수습기자	○명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전공불문)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접수기간 및 방법

- ▶ 접수기간 2021년 5월 31일(월)~6월 13일(일)
- ▶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 접수방법 본사 인재채용 홈페이지(recruit.thebell.co.kr) 에서 로그인 후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접수
- ▶ 문의처 경영지원팀 02)724-4100

전형절차



※ 전형별 합격 발표는 개별 안내

- ▶ 회사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 (을지로 1가) 금세기빌딩 5층
- ▶ 홈페이지 <http://www.thebell.co.kr>
- ▶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함
- ▶ 기타 서류는 최종합격 후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더벨은

- ▶ 더벨은 2007년 출범한 한국 최초의 자본시장 전문 미디어입니다.
- ▶ 더벨은 금융시장의 흐름과 자본시장의 주요 팀, 기업 및 금융 회사의 경영 분석 및 경제 전반의 흐름을 심층 취재하고 분석합니다.
- ▶ 더벨은 200여 금융회사와 1000여개 대기업 중견기업에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더벨의 기자들은 체계적인 훈련과 학습으로 금융-자본 시장 스페셜리스트로 육성됩니다.